

# 일본인 여성결혼 이민자의 생애사 연구\*

이정희\*\*  
55barami@deu.ac.kr

## <目次>

- |                      |                  |
|----------------------|------------------|
|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4. 두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 |
| 2.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 4.1 준꼬의 생애사      |
| 2.1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 4.2 도모꼬의 생애사     |
| 2.2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 5. 분석            |
| 2.3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생활 | 6. 마치며           |
| 3. 연구방법              |                  |

主 題 語: 일본인 결혼이주여성(Japanese immigrant wives in Korea), 생애사(life history), 한국생활적응(adaptation to Korean society), 결혼동기(Unification Church's mass wedding), 국제결혼(international marriage)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에서 국경을 초월한 결혼은 정부가 국제결혼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0년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9년 8월 결혼알선 기관의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그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sup>1)</sup> 2011년 4월에 발표한 「2010혼인·이혼 통계」에 의하면 2010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3만 4천 2백 건으로 2009년보다 9백건 증가하였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2006년 4월 한국의 중앙정부차원에서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 통합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의 자녀가 성장하면서 여성 결혼 이민자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과 사회통합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학계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2000년대 중반에 오면서 여성결혼이민자 개인

\* 이 논문은 2010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과제번호 2010AA032)

\*\* 동의대학교 평생교육학과 조교수

1)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pp.73-106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경향이 변화되면서 결혼이민자기족의 가족생활, 경제생활 및 취업실태, 사회적 차별, 정체성, 정책수요 등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 파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sup>2)</sup> 나아가, 여성결혼 이민자를 동질적으로 보지 않고, 거주지역, 출신 국가별로 구체화하여 연구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도 아시아권의 개발도상국 출신 결혼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 이민자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일본인 여성결혼 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과정을 세부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일본인 여성결혼 이민자는 결혼동기가 타 출신국가와 달리 통일교를 통한 결혼이 많으며, 경제적인 면에서 타 출신국이 개발도상국인데 반해 일본은 선진국이고, 또 한일 교류의 역사적 복잡성을 볼 때, 독립적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 여성결혼 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 자료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일본인 여성결혼 이민자의 거주실태를 알아보고 국제결혼 과정, 가족생활과 사회생활 적응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들의 적응과정의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생애사 분석을 통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일본인 여성 결혼이민자는 크게 결혼동기에 따라 연애 결혼한 경우와 통일교를 통한 경우로 나누어지므로 연구대상자는 두 경우의 사례를 한 사례씩 모집하였다. 이러한 생애사 분석은 출신국을 기준으로 하는 집단 이미지를 벗어나서 일본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능동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 생애사를 통해 드러난 일본 결혼 이주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한 개인, 가족의 일원, 이웃을 이해하고 나아가 이들의 삶을 국가에서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생애과정이었어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들의 성장과정, 결혼과정, 결혼생활 및 이주적응과정을 통해 이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생애 과정에서 나타나는 적응에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2) 김계정(2011) 「신종교의 다문화가정시대의 도래에 따른 대응」 『신종교연구』 24, pp.327-361

## 2.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실태

### 2.1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한국에서 국제결혼은 1980년대 종교단체를 통한 일본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 한중국교수교 이후 중국조선족(중국동포)과 한족들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10년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혼인현황을 <표 1>을 통해 살펴보면, 한국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은 총 26,274건으로 중국(36.6%), 베트남(36.6%), 필리핀(7.3%)로 이들 3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9.7%로 압도적이다.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는 1990년에는 총 619건 중 175건으로 미국 268건에 이어 2위로 많았으며, 통일교의 국제결혼사업의 결과로 1992년, 1223건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그 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작게는 561건에서 많게는 2,370건으로 꾸준히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고,<sup>3)</sup> 2010년 1193건으로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 여성 중 4.5%의 비율이 것으로 집계되었다.<sup>4)</sup>

<표 1>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건,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	
한국남자 외국여성	9,684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100.0	1,132
중국	6,977	7,023	13,347	18,489	20,582	14,566	14,484	13,203	11,364	9,623	36.6	-1,741
베트남	134	474	1,402	2,461	5,822	10,128	6,610	8,282	7,249	9,623	36.6	2,374
필리핀	502	838	928	947	980	1,117	1,497	1,857	1,643	1,906	7.3	263
일본	701	690	844	809	883	1,045	1,206	1,162	1,140	1,193	4.5	53
캄보디아	2	2	19	72	157	394	1,804	659	851	1,205	4.6	354
태국	182	327	345	324	266	271	524	633	496	438	1.7	-58
미국	262	267	322	341	285	331	376	344	416	428	1.6	12
몽골	118	194	320	504	561	594	745	521	386	326	1.2	-60
우즈베키스탄	66	183	328	247	332	314	351	492	365	317	1.2	-48
네팔	2	21	22	32	16	33	82	159	316	202	0.8	-114
러시아	155	236	297	315	234	203	152	110	139	119	0.5	-20
기타	583	443	577	564	601	669	749	741	777	894	3.4	117

※출처 : 통계청(2010). 「2010년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3) 정기선(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출신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0, pp.69-104

4) 통계청(2010) 「2010년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한편 여성가족부가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적취득여부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은 거의 대부분인 98%가 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다.<sup>5)</sup>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조사를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인은 한국에 영주할 확신이 있지만,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아도 생활의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자가 많았다.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는 본국의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자녀가 본국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본국을 방문할 때 일본 국적의 여권이 오히려 더 편리하며, 일본에서도 자국민으로서의 의료 및 복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유가 크다는 것이다.<sup>6)</sup>

즉, 거주연한이 긴 일본인은 입국당시에 비교적 국적취득이 용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국적을 유지한 채 10년 이상을 한국에서 거주하였고,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사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착화 되어가고 있다.

<표 2>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이유/국적	일본 (72)	조선족 (14)	한족 (13)	베트남 (3)	기타 (27)
본국국적 유지가 경제·사회적으로 유리	31.9	21.4	7.7	-	14.8
자녀가 본국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12.5	0.0	7.7	-	7.4
내 본국에 가서 살 계획	1.4	21.4	46.2	-	0.0
한국에서 영주할 확신이 서지 않아서	0.0	28.6	15.4	-	22.2
한국국적 없어도 생활불편 없어서	26.4	14.3	15.4	-	33.3
국적취득 필요성 못 느낌	15.3	7.1	7.7	-	18.5
기타	12.5	7.1	0.0	-	3.7

주: 앞으로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려는 사람 중의 비율

- : 사례수가 너무 적어서 %를 표기하지 않음

※출처 : 설동훈·이혜경·조성남(2006), 여성가족부(2006). p.43.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동기는 일제 강점기에 생존을 위한 선택, 이후 최근 유학이나 직장동료로 만나 결혼한 사랑의 선택, 통일교의 축복결혼을 통한 종교의 선택이 있다.

첫째, 일제 강점기에 생존을 위한 선택유형이다. 일제강점기의 일본정부의 ‘내선일체’, ‘내

5) 설동훈·이혜경·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서울:여성가족부. p.43

6) 조현미(2009) 「일본인 국제결혼여성의 혼성적 정체성」『일본어문학』45, pp.521-544

선용화'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내선결혼'이 한일국제결혼의 원류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결혼형태로서 맞선결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시대적 배경과 전쟁으로 인해 피폐한 사회 속에서 생존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었던 조건이었다. 일본 국내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면 비록 피지배국민인 조선인이었다 하더라도 조선인의 청혼이나 주위의 권유를 수락하는 데에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일본여성이나 가족은 조선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윤택함을 선택한 것이다.<sup>7)</sup>

둘째, 전쟁 중에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 노동자들과의 사랑을 선택한 일본여성,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학생으로, 여행 중에, 직장 동료로 만나 결혼을 선택한 유형이다<sup>8)</sup>. 가까운 곳에서 남녀의 만남이 이루어짐에 따라 서로를 알게 되고 또한 주변의 소개로 만나 사랑이 싹트게 되어 조선인이라는 이민족의 인식보다는 독립된 남성으로 인식하여 배우자로 선택하게 된다. 한국남성은 일본 남성들에 비해 의사표현이 솔직하고 직설적이라서 상대를 알게 쉬우며 애정표현도 적극적이며 남성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든든한 느낌이 들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서로의 만남을 통해 사랑이 싹트게 되어 결혼의 결실을 맺는다.<sup>9)</sup>

셋째, 축복결혼을 통한 종교의 선택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유형이다.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한일결혼을 제외하고 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한일결혼에 있어서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수가 종교를 통해서 부부가 되었다. 한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경우 일본여성결혼이민자 중 86.8%가 통일교의 축복결혼을 받은 자들이므로 집계된 연구결과가 있다.<sup>10)</sup>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는 축복결혼식이 끝나면 대체로 신랑의 나라로 가서 살게 된다. 그 후 주관한 교회에서 33일간의 교육을 받으며, 집 근처의 소속 교회에서 주관하는 임지교육을 1개월 받는다. 임지교육은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교습과 전통문화체험, 요리실습, 한국문화 사회제도강좌, 역사 강좌, 예비부부교실, 가정생활 등에 대한 내용을 가르친다. 일본인 부인을 맞이한 한국인 남편에 대한 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통일교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진행되는 한국인 남편들을 위한 일본문화체험수업은 한일 간 문화차이 강좌, 일본 전통문화 체험 및 관람, 배우자 초청만남 및 대화의 시간, 일본교회 및 성지방문 등을 통하여 한일 간 문화차이 인식과 극복, 양국의 문화와 행동양식을 직접체험하고 상호간의

7) 김석란(2007) 「재한일본인 아내의 결혼동기에 관한 연구」『일어교육』42, pp.241-258  
 8) 이지선·천혜정(2008) 「한국남성과 연애 결혼한 일본여성의 한국결혼생활적응의 의미에 관한 연구」『한국가족관계학회』13(2), pp.57-76  
 9) 김석란(2007) 「재한일본인 아내의 결혼동기에 관한 연구」『일어교육』42, pp.241-258  
 10) 정기선(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출신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인문사회과학연구』20, pp.69-104

이해를 도모, 축복당사자간의 신뢰와 심정적 관계 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sup>11)</sup>

## 2.2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 실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아래 <표 3>과 같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 만족도가 평균 3.96인데 반해,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는 3.69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또한, 지난 한달 동안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다는 부부도 일본 부인이 47.2%로 2위였으며, 이혼 고려율도 14.2%로 2위였다. 부부싸움의 제 1원인도 다른 국가출신 여성이 경제적 문제를 꼽는데 반해 일본인 결혼여성이민자들은 자녀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자녀의 존재는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는데 심리적 거점이자 확실한 희망이 되는 듯하다.<sup>12)</sup>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녀에 대해 갖는 관심과 애착은 비록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한국 엄마들의 교육열과 견줄 만한 수준의 높은 자녀교육을 기대하면서 ‘일본여성’에서 ‘한국엄마’로 자리매김 하도록 한다. 그러나 자녀를 한국사회에서 잘 키우려는 욕심은 높은 교육열 및 학벌 위주의 한국사회에서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sup>13)</sup> 한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2/3가 사교육비 등 교육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을 겪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sup>14)</sup> 이러한 자녀 교육 열망은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들도 한국 엄마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녀들을 높은 교육열 속에 치열하게 경쟁하며 키워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의무감이 담긴 열망을 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인 결혼 여성이민자들이 통일교의 교육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녀문제를 비롯한 한국 생활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1) 김계정(2011) 「신종교의 다문화가정시대의 도래에 따른 대응」 『신종교연구』24, pp.327-361

12) 김상임(2004) 『상당사례를 통해 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 3주년 심포지움: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pp.17-48

13) 이지선·천혜정(2008) 「한국남성과 연애 결혼한 일본여성의 한국결혼생활적응의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13(2), pp.57-76

14) 김보라(2008) 「국제결혼 이민실태와 이민자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 경기도 남양주시의 사례」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표 3> 여성결혼 이민자의 출신국가별 부부생활 적응

		중국 조선족 (255)	중국 한족 (168)	일본 (106)	베트 남 (104)	필리 핀 (67)	몽골 (56)	태국 (54)	전체 (810)
부부간 문화 차이 (%)	거의 안느낌	54.5	39.3	28.6	54.8	27.3	32.1	48.1	43.8
	식습관	22.0	25.6	22.9	30.8	36.4	32.1	24.1	26.0
부부관계 만족도	부부역할기대	7.5	13.7	1.4	5.8	15.2	12.5	9.3	10.1
	전반적 만족도	4.07	4.18	3.69	3.82	3.85	3.79	3.83	3.96
지난 한 달간 부부싸움 경험률 (%)	가사노동분담	3.68	3.75	3.21	3.57	3.21	3.43	3.54	3.55
	문화/가치관차이	27.9	29.2	47.2	18.3	58.2	37.5	44.4	43.7
부부싸움 제1원인	문화/가치관차이	29.9	29.2	-	41.1	26.4	28.2	-	-
	자녀교육/행동	-	-	22.0	-	-	-	-	-
	언어소통 문제	-	-	-	-	-	-	38.9	-
이혼고려율(%)		5.1	3.6	14.2	3.8	10.4	8.9	16.7	7.3

※출처 : 정기선(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p. 86

### 2.3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생활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친구관계, 친교모임이나 단체활동, 종교생활, 이웃관계 및 취업생활 등을 통하여 사회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대체로 일본 부인들이 다른 국가출신들보다 사회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부인들 중 81%가 종교단체 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95%가 속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한국에 살고 있는 본국인 친구나 동료에서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다는 일본 부인들이 72%로 다른 국가출신들보다 그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한국인 이웃이나 친구에게도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다는 사람의 비율도 29.9%로 전체 평균 14.4%보다 거의 두 배가량 높다. 또한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인 이웃과 교류하는 정도가 다른 국가출신들보다 상당히 높은데, 51%는 한국인 이웃의 경조사에 참석하며, 41%는 어려운 일을 한국인 이웃과 의논하고, 38%는 한국인 이웃으로부터 생활용품이나 가사 도구를 빌려 쓰기도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sup>15)</sup>

15) 정기선(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출신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인 문사 회과학연구」20, pp.69-104

&lt;표 4&gt; 여성결혼 이민자의 출신국가별 친구 및 이웃관계

	중국 조선족 (255)	중국 한족 (168)	일본 (106)	베트남 (104)	필리핀 (67)	몽골 (56)	태국 (54)	전체 (810)	
정기적 참여하는 단체/모임 없음	62.0	69.6	9.4	56.7	55.2	53.6	42.6	53.6	
사교 및 친교모임 참여(%)	25.5	16.7	20.8	19.2	9.0	16.1	29.6	20.5	
종교단체 모임 참여(%)	9.4	6.5	81.1	12.5	25.4	21.4	24.1	21.7	
속마음을 터놓을 사람 없음	12.9	10.7	4.7	16.3	14.9	16.1	14.8	12.3	
속마음을 터놓는 사람	배우자	57.3	58.3	56.6	44.2	40.3	44.6	37.0	52.1
	국내 본국인친구/동료	33.3	35.7	71.7	45.2	40.3	39.3	50.0	42.5
	한국인 이웃/동료	17.3	11.9	29.2	4.8	4.5	16.1	9.3	14.4
한국인 이웃 과 교류	아이맡김/집부탁	14.9	6.0	26.3	11.6	13.4	10.7	14.8	13.7
	경조사 참석	32.2	24.5	50.9	20.2	31.4	18.6	33.4	31.2
	생활용품/가사 도구빌림	23.5	12.5	37.7	13.4	20.9	21.4	18.5	31.1
	급한돈 필요시거래	9.5	3.0	10.4	6.7	13.4	7.2	7.4	6.5
어려운 일 의논	21.6	11.3	41.5	16.3	20.9	26.8	16.8	21.4	

※출처 : 정기선(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p. 90

### 3. 연구방법

한국에서 일본인 결혼 이주여성의 적응과정의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생애사 연구를 통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생애사는 개인 스스로의 적응과 사회에 의한 구성적인 면이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부에서 생성되는 과정이다.<sup>16)</sup> 이러한 구술 생애사는 기록을 남기지 못하는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게끔 도와주는 연구방법이다.<sup>17)</sup>

일본인 여성 결혼이민자는 크게 결혼동기에 따라 연애 결혼한 경우와 통일교를 통한 경우로 나누어지므로 연구 참여자는 두 경우의 사례를 한 사례씩 모집하였다.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 참가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비밀보장과 익명성을 설명하였다. 인터뷰는 2시간

16) 박성희(2004)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서울: 원미사

17) 윤택림·함한희(2006) 『새로운 역사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서울: 아르케



정도 이루어졌으며 남편과의 만남에서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일본여성으로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산다는 것의 의미, 한국에서 자녀교육의 문제, 이웃과 사회생활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가자의 허락 하에 전 과정을 녹음하여 이를 필사본으로 옮겨 분석자료를 마련하였다. 분석의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에는 전화를 통해 자료를 보충하였다.

<표 5> 연구참여자

이름	생년, 한국거주기간	가족관계	학력	결혼	남편직업	현재직업
도모코	77년생, 15년	남편, 6학년 아들, 3학년 딸	전문대 회계학 전공	친구소개	병원회사원	통번역
준코	72년생, 13년	남편, 6학년 아들, 5학년, 7살 딸	전문대 컴퓨터 전공	통일교	용접	전업주부

## 4. 두 결혼 이주여성의 생애사

### 4.1. 준코의 생애사

#### 1) 성장과정

준코는 1972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1남 1녀의 장녀로 태어났으며, 일본에서 전문대에서 컴퓨터를 전공하였다. 현재 일본에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2살 작은 남동생이 함께 있다. 어릴 때부터 조용한 성격이었고, 다른 일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자랐다. 어릴 때에는 종교를 싫어했는데 대학교 다닐 때 설문지 한부를 해 주고 사주를 봐 준다는 사람을 만나서 통일교를 알게 되었고, 이후에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교육도 받고 종교를 가지게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을 희망하기도 했는데 종교적으로 신념을 가지게 되면서 국제결혼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게 되었다.

#### 2) 국제결혼 과정

국제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던 차에 통일교 교리에 따라 국제결혼을 결심한 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고 거리상 가깝다는 것이 한국 사람과의 국제결혼을 하게 된 직접

적 이유가 되었다. 통일교 결혼 절차에 따라 남편 사진을 보았는데 본인이랑 닮았고 호감이 있어 결혼을 결심하고 1998년 한국으로 들어와 결혼식에서 처음 신랑을 만났고 이후에 결혼생활을 하게 되었다.

친정의 반대도 있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에 자주 가고, 둘째를 일본에서 출산하면서 친정에서도 환영받고 있으며, 친구들도 결혼당시에는 고집이 세고 부모님 생각도 안한다고 비난했지만 지금은 한국에도 놀러오고 일본 가면 연락해서 만나면서 관계가 잘 유지되어 있었다. 시댁도 통일교여서 친척들의 반대가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3일 반대하셨는데 일본인 아내를 맞은 남동생의 설득으로 허락하셨다. 결혼 이후 언어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남편이랑 사전 찾아가면서 서로 배우고, 친척모임에서는 먼저 시집온 분이 통역도 해주시고 남편이 4남 3녀 중 여섯째여서 많은 친척들이 있고 그분들이 환영해주시고 챙겨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도 일본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 치과진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실리적으로 따졌을 때 일부러 없애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일본친정에 방문해도 며칠 있으면 불편하고, 김치 없으면 밥맛이 없는 걸 보면 한국사람 다 되었다고 느낀다고 한다.

### 3) 가정생활

남편의 적극적 도움으로 준코의 가정생활은 거의 만점에 가깝다고 했다. 이러한 준코의 생각에는 남편도 국제결혼을 해서 한국사람과 결혼하면 없었을 문제 예를들면, 자녀양육이나 문화적인 차이, 한국생활 적응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양육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친척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는데, 결혼당시 시어머니가 안계셨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의 자리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다른 친척들과도 왕래가 많았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서로 잔소리를 줄이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가지고 있었다.

가정생활에서 자녀 양육이 현재 준코의 삶에서 상당한 어려움으로 이야기 되었다. 아이들에게 한국 엄마처럼 한국말로 동화를 못 읽어 주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더 많은 교육정보를 알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하고 있었다. 다행히 학교에서 자녀들의 생활에는 어려운 점이 없었지만, 앞으로 시춘기를 잘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노년에 대한 가족생활도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들이 한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아마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4) 사회생활**

결혼 후 전업주부로 계속 지내서 준코의 사회생활은 통일교 활동과 이웃사람들, 학부모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 주일에 한번 교회를 방문하고 그 외에도 일주일에 두세번 교회를 가는데 일본인들과 일본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결혼초기에는 결혼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구했다. 이웃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집안에 초대해서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학부모 모임도 자주 참석해서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있고, 최근에도 복지관에서 타국의 결혼이주여성들과도 교류가 빈번하다. 자녀 교육비 때문에 일을 해야 하나 생각할 때도 있는데 일을 한다면 의료관광이라든지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국제결혼생활을 잘 하기위해서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다문화 가정이라서 위축된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들이라서 이주여성들이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하면 한국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4.2. 도모코의 생애사**

**1) 성장과정**

도모코는 1977년 일본 오사카에서 2녀의 장녀로 태어났으며, 일본에서 전문대 회계학을 전공하였다. 도모코는 여중·여고시절이 그다지 평탄하지는 못하였다. 학교 친구들로부터 학교 폭력과 왕따를 당하기도 하였으며, 한국인은 아니었으나 친구들로부터 ‘조센징’이라는 놀림을 당하기도 하였다. 도모코의 외고조부님은 한국계 출신이며, 외숙모 중에서도 한국인이 있으며, 인은 아가족사로 인해 자신이 친구들로부터 ‘조센징’이라는 놀림을 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학교 친구들로부터 폭력과 왕따를 경험하면서 힘들게 학교생활을 하던 중에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도모코는 학창시절의 행복하지 못했던 경험들로 인해 일본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으며, 반면 일가친척 중 한국계 친척들에 대한 좋은 인상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막연하게나마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꼭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 국제결혼 과정**

도모코는 1995년 당시 19살의 나이에 한국계 출신 친척의 소개로 한국에 와보게 되었으며, 이때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다. 도모코는 소개받은 남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정식으로 교제를 해보기로 하였다. 하지만 교제도중 남편이 군입대를 하게 되고, 이때 도모코

는 남편가족들을 수시로 방문하여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결혼 승낙을 받고 혼인신고를 하였다. 당시 남편은 군 입대 중이었으나, 시부모님과 친척들을 수시로 찾아가서 며느리로써의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였으며, 집안 대소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시대 어른들과 관계를 만들어나 갔다. 특히 일본어에 능통하시었던 시삼촌의 도움으로 시대 가족들은 도모꼬의 진심을 이해하고 마침내 한 집안 식구로 받아주게 되었다.

### 3) 가정생활

도모꼬는 남편이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일본과 한국을 수시로 드니다들면서, 결혼이민을 준비하였으며, 1998년 남편이 군제대를 하자 비로소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결혼 초 5년 정도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의 문화차이로 인해 시부모님과 갈등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매우 힘든 결혼생활을 하였다. 시부모님과과의 문화적 차이는 식습관차이, 식사문화의 차이, 육아방법에 대한 차이 등 생활적으로 사소한 문제들에서 부딪히게 되었으며, 일본 시어머니와 한국 시어머니가 매우 다르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즉 도모꼬는 ‘일본 시어머니는 결혼한 자녀와 함께 생활하더라도 며느리를 결코 간섭하는 경우가 없으나, 한국 시어머니들은 사사건건 며느리를 간섭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편 도모꼬는 결혼 13년 만에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남편과의 부부 싸움이 잦아지기도 하였다. 남편은 도모꼬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도모꼬는 13살 딸과 10살 아들이 두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일본인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엄마를 통해 일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도모꼬는 가능하다면 자녀들이 일본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어하였다.

### 4) 사회생활

도모꼬는 결혼 후 13년간 전업주부로 생활하였다. 남편이 바깥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그리 지지하는 편이 아니었으며, 도모꼬 역시 결혼한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면서 남편과 자녀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최고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TV 드라마 등을 통해 일하는 여성에 대한 동경이 생기게 되고, 남편 직장에서의 고용에 대한 불안 등이 높아짐에 따라 직장생활에 대한 요구를 가지게 되었다. 도모꼬는 자신의 언어적 자원에 기반하여 통번역사와 의료코디네이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준비를 2009년부터 조금씩 해오던 과정에 2010년 일본인 친구의 소개로 모 기관의 통번역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다.

도모꼬는 취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매우 큰 긍지와 자부심,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노인들에게 일본에 대한 문화를 소개하고, 일본어를 강습하는 활동과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한국문화와 지역을 소개하는 활동 등에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활동은 도모꼬에게 이후의 직업에 대한 포부를 갖게 하였다. 또한 도모꼬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지역사회에서 한국인 학부모들과의 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반면 도모꼬는 직업활동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절차에 맞지 않는 업무배치나 임금 책정 등이 자신이 여성결혼이민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문제라고 인식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도모꼬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편과의 가사분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와 남편이 도모꼬의 직장생활에 대해 그리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지 않는 문제들로 직장생활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 5. 분석

두 여성은 생애사를 보듯이 결혼동기도 다르고 친척관계, 현재 직업활동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여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한국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 5.1. 결혼 과정

이들은 결혼 전에 결혼 이민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 두 여성 모두 가족의 반대도 있었고 친구들의 만류도 있었지만, 준코는 종교를 통한 신념이 있었고, 도모꼬는 남자친구와의 교재를 통해 결혼에 대한 의지가 이미 굳어져 있어서 주변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자신의 선택으로 국제 결혼을 선택하였다.

어릴 때부터 국제결혼을 꼭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걱정이 되니까 네, 뭐 많이 반대 하셨죠. 아무래도 가까이, 시집을 가면 좋은데……. 그래도 종교적으로 신념이 있어서 제가 스스로 선택했죠.

또한, 한국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 갖고 있었다고 한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가족관계의 정이 깊고, 한국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기 전에는 알지 못했다고 하고 교육을 받고는 일본이 잘못했으니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한국생활을 잘하면 한국 사람들도 역사속의 일본이 아니라 현재 일본사람을 잘 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낙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저, 저는 국제결혼은 좀 희망하고 있었어요. 희망, 희망이라고 합니까? 근데 너무 멀리가면 좀 저는 불안한거죠. 한국은 아무래도 가깝고, 한국 나라는 그런… 이미지가 좋았었어요. 또, 그 뭔가 정이 너무 좀 깊다고 합니까? 정이 깊고, 뭐… 그냥 싸워도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일본 사람은 좀 싸우면 계속 오래기는데 한국사람은 뒤끝이 없다고……. 하여튼 좀 이미지가 너무 좋았어요.

## 5.2. 가족생활 적응

두 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에 가장 도움이 된 사람은 남편이라고 했다. 준꼬는 종교를 통해서 사진만 보고 결혼식장에서 처음 보았지만, 남편이 생활 전반에서 이야기도 잘 해주고 잘 가르쳐주고 적극적으로 부인을 도와주었다. 이러한 남편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남편의 태도에 대해서 부인 또한 감사를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즉 두 여성모두 남편의 이해와 도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친척보다 남편이 많이 도와줘요. 우리… (중략) 그래서 네, 형님한테는 제가 좀 불편해서 남편한테 좀 많이 이야기 하고……. 근데 우리 남편은 그렇게 무뎡뎡하지 않아요. 애, 애들도 많이 봐주고, 네, 그래서… 뭐, 다행이다.

또, 한국에 와서 힘들었지만 남편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네. (중략) 원래는 한국 부인이라면 알아서 할 건데 자기가 더 가르쳐줘야 되고, 네, 이리저리 뭐가 고장났으면 고쳐놔, 하고. 저도 힘들었지만 남편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한, 두 여성의 공통점은 친척의 이해와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확대가족이 핵가족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친척 중 일본인이 있다든지, 일본어를 잘 하시는 친척이 있어 이들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도움을 줌으로써 초기 적응을 도와주었다.

이는 타국적의 여성결혼 이민자와 다른 점인데 일제 강점기의 역사와 거리가 가까운 인접국가라는 요인들이 있어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상호작용이 많은 국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는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타국적의 여성들에 비해 초기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아버지는 3일 반대 하셨지만, 시어머니의 동생분의 아내가 일본 사람인데요, 그 일본 사람이 워낙 좀 착하고, 잘하셔서 뭐……. 통역도 해주시고, 좋은 것은, 뭐 아무래도 우리가 형제가 많다 보니까요, 환영하는 그… 그게 정말……. 그러니까 교회, 교회 안 다니시는 분, 분들이잖아요. 아주버님이나… 그래도 뭐, 잘 줌… 예. 챙겨주시고… 같이 식사도 자주 하시고.

두 여성의 가정생활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문제는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이었다.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일본 여성결혼 이민자의 자녀들은 이미 학령기에 접어들었고 청소년기에 도달하여 부모와의 다양한 역동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여성결혼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사항이 되고 있다. 한국의 교육열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한국 엄마들을 못 따라가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었고, 한국의 유학열풍을 보고 이미 가지고 있는 일본 친정이라는 자원을 활용하여 일본 유학을 고려하는 등 다양한 갈등상황에 놓여 있었다. 자녀교육에 대한 문제는 일본인 결혼여성 이민자의 적응 뿐 아니라 자녀교육의 성공여부가 자신이 국제결혼을 한 것에 대한 평가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또한,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성인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생각은 자신의 노후의 삶과도 관련이 되어 있었다.

자녀교육이 제일 힘들어요. 지금도 앞으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재가 크면 클수록……. . 자녀 교육에서 지금 좀 어려운 점은 이 잔소리 하는 그… 사춘기 엄마… 사춘기랄까, 갓 시작한 엄마로써의 어려움. 정보나 이런 건 구하기 어려워요. 네, 어려우니까 네, 우리 남편이 뭐, 잡지를 하나 받아가지고 지금 ooo라는 학습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무슨 잡진데… 한 달에 한 번… 그런 잡지도 보고, 뭐, 뉴, 뉴스나 라디오를 많이 듣고… 네.

시골이다 보니까 그, 그런 동경이나 그 쪽에 뭐, 후쿠오카 시내처럼 잘은 모르겠지만요. 한국은 정말 뭐, 한, 교육열이 정말 높아요. 한국은 시골에 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도 네, 한국에 살아가라고 하는 정도니까. 따라가기 힘들어요.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한 선호는 한국 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소이다. 준꼬는 남편이 시아주버니와 함께 일을 하는 환경 때문에 시댁가족과 상호작용이 많다. 이러한 빈번한 상호작용을

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도모코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한국의 가족문화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보편적으로 일본의 개인주의적인 문화에 비해 가족의 응집력이 높고 가족구성원 간의 융합이 많지만, 한국의 가족이 모두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한국의 응집력 높은 문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가족문화가 더욱 건강해질 필요가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네, 나라에서 이만큼 지원도 해주고, 그러죠. 근데 뭐, 네. 뭐 저는 몰랐는 것은 뭐 어떤 텔레비 보니까 그... 어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로 오시는 분을 자기 식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그, 네. 가까운 의미잖아요 그리고... 그렇구나! 한국은 그런 나라구나. 그러니까 뭐, 네. 자기 마음이 열면 뭐,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때 때리고, 안 되는 건 안 돼, 그렇게 강압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학교에 자기 딸이나 아들이 학교 입학하면 같이 도서관이고 어디고 뭐, 근처에는 뭐가 있고 이래저래 뭐, 정말 애를 뭐, 사랑하는 그게...

### 5.3. 사회생활 적응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사회 단체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지금처럼 다문화 정책이 구축되지 않아서 정부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여성결혼 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하고 있다.

저는 이민자라서 그, 사직 복지관이나 그냥 그... 어딴니까 그, 하여튼 그... 시에서 운영하는 어디지? 그... 하여튼 한국어도 무료로, 학교에 대학교나 가면 좀 네, 많이 좀 돈 내야 되지만 복지관이나 좀 그런... 그건 어디지? 하여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또한, 이웃 공동체의 도움이 한국생활을 정착하는데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 준코는 통일 교라는 단체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지만 같은 아파트 주민이나, 자녀 친구의 어머니의 도움 등으로 학부모 활동에 도움을 받았고 그러한 이웃의 도움에 감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는 그 이기적이잖아요, 아무래도 예, 예. 그래서 한국에 와서 뭐... 만약에 우리 뭐... 애도 다른 집에 가 가지고 밥 먹고 왔다고 그런 게 신기했어요. 일본에서는 잘... 없어요. 친척이나, 네.

대단합니다. 그냥 자기 집만 하는 게 아니라, 옆집이나 애, 놀러오는 애한테 치킨 사주고, 피자 시켜주고... (중략) 예, 진짜 저도 그런 부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성장함으로 인해 직장 생활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졌다. 직장생활의 진입은 이주여성에게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을 갖게 하였다. 직업을 가지면서 더 자신을 잘 돌보게 되고, 주위사람들도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을 느꼈다. 물론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직업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해 만족하였다.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아시는 분이 쿠바와 뭐 어떤 사업이 필요한데 일본 통역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로 가셨다가, 또 거기서, 그 일을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또 식당으로.....

그러니까 엄마들이 바쁘고, 살 빠지고, 예뻐지고 하니까 무시 안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래서 지금도 바쁘거나보다 하고, 오히려 어... 너는 바쁘거나 보네, 오히려 한국 엄마들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얘기해서 더 가까이 이렇게 또 오히려 신경써주게 되고, 또 만나면 반가워 해주는 그런 관계가 생기니까 일이 해서 잘했다고 생각도 하고 그런 건 있어요.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가족생활, 사회생활 외에도 문화적 차이와 역사적 관계에 의한 두 나라의 미묘한 신경전이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녹아있었다. 도모꼬는 왜색문화에 젖어있는 남성들의 접근 때문에 당황한 적이 있었으며, 준꼬 또한 낯선 사람들이 자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거나 간섭을 했을 때 문화적 차이를 느꼈다. 처음에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한국과 일본의 차이로 인식하였지만, 다르게 행동하는 한국인도 많이 경험하면서 이러한 차이가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했다.

노인정에서도 어르신이 몇 달 안됐는데, 갑자기 뭐... 처음에는 커피 사줄게 하면서 다른 어르신도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님 혼자 나오셔서가지고 밥 먹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자기는 칠십 이다 돼서 할라고 하니까, 그게 그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고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 다 애인있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는 그 아무래도… 뭘니까, 그… 앞뒤없이 말로 해주시잖아요. 그 얘기 데리고 있으면. 약간 추운데 양말 안 신고 있으면 막 애한테 왜 양말 안 신고, 따뜻하게 안 하나… 예, 버스타고 있어도 그렇고… 예. 그런 게 와! 놀랐어요. 그래도 이제는 그렇게 그… 정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구나, 라고는 생각 했어요.

이제는 한국 일본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을 때도 있는데 다시금 팽팽한 긴장감이 들때는 양국의 역사적 이슈가 거론된다든지 한일전과 같은 시대적 이슈가 있을 때였다.

우리 집에는. 그러니까 항상 한·일전 되면 긴장되요, 저는. 아, 진짜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본과의 역사문제나 터졌을 때만… 없었으면… 한국에 오고 나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죠. 아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또 친척들도 그렇고… 한·일전을 하면 도모꼬는 일본 응원하면 안 돼, 한국 응원해라, 이렇게 말을 들으면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괜히 일본 응원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감정이 생겨요.

역사가 네, 그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많이 안 가르쳐줘요. 역사를, 네. 그래서 저도 교회 와서 뭐 그런 역사, 그런 거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네.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네.

## 6. 마치며

본 연구는 통일교를 통한 결혼, 출신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인 점, 역사적 복잡성 등에 의해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연구에서도 소외되어 있었던 일본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생애 과정에서 나타나는 적응에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논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국제결혼 과정에서 본인의 국제결혼 선택에 대한 의지가 높았다. 친정에 대한 경제적 부양이라든지, 잘사는 나라에 대한 동경과 같은 외적 동기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의한 내적인 동기와 연애시기를 거친 사랑에 의한 선택은 이들의 결혼생활에 대한 삶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측면은 일반 여성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결혼 동기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경우가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8)19). 국제결혼에 대한 본인의 선택은 결혼 성립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의 반대와 결혼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대처할 때에도 적극적 해결의지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 만족에서 초기적응에서 남편의 적극적 도움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생활이 남편과 아내의 애정을 기반으로 시작되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애정은 너무도 당연하겠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본국에서의 다양한 삶의 기반과 격리되어 타국으로 왔으므로 남편에게 부모역할, 친구역할을 모두 기대하게 된다. 결혼 초기과정에서 남편의 적극적 도움은 이주 여성들에게 남편을 내가 잘해야 하는 외적 대상이 아니라 함께 결혼이라는 인생과제를 해결해가는 동반자로 인식하게 된다. 즉, 남편과 내가 국제결혼의 성공과 더불어 행복한 가정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간다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배우자들은 보다 표현적이고 적극적으로 결혼생활에 동참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생활 적응에서 사회적지지 시스템의 의존도가 크다는 것이다. 모국에서는 가족, 고향친구, 학령기 친구, 친척, 지역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결혼을 하여 지역을 옮김으로써 사실상 이들의 사회적지지 시스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미 속해져 있는 시스템에서 구하는 정보와 그 구성원의 한정적 의견을 참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다양한 연령대와의 결연이 필요하며, 취미나 관심사에 의한 동아리 참여와 타 국적 이주민과의 만남 등 사적, 공적인 사회적 지지시스템이 확장되어야 한다.

넷째, 양국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한 혼란들이 예상되었으나 이들의 삶에서는 단편적 삶의 일부였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삶속에서 다른 갈등의 문제처럼 일면의 요소이지 이들의 현 존재감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았다. 이는 결혼 이주여성이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며 새로운 사람, 사회, 문화의 만남을 통해 자기를 확장하고 다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주체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이들의 자녀양육의 문제, 맞벌이 부부로서의 문제 등은 한국 일반가정에서 결혼생활의 주요한 이슈와 동일하다는 점이다. 일본인 결혼이주 가정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자리잡기 시작해서 2011년 현재 이들의 자녀는 학령기에 이미 진입해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을 위해 교육프로그램들은 한국어 수업에 치중되어 있고, 최근 이주여성을 중심, 저개발

18) 소은덕(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 홍순숙(2006) 「울산시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국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배우자 및 가족 관계 강화 프로그램이 많다.<sup>20)</sup> 그러므로 일본인 결혼이주 가정의 자녀양육에 관한 성공적 사례개발과 같은 연구를 통해 이후 다문화 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제안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기적응이 달성된 가정은 가족생활 주기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결혼 이민자가 우리문화의 소수자임을 생각할 때 여성 결혼이민자 중에서도 소수자인 일본인 결혼여성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의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결혼 여성이민자의 교육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參考文獻】

- 김계정(2011) 「신종교의 다문화가정시대의 도래에 따른 대응」 『신종교연구』24, pp.327-361  
 김보라(2008) 「국제결혼 이민실태와 이민자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 경기도 남양주시의 사례」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상임(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 3주년 심포지움: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pp.17-48  
 김석란(2007) 「재한일본인 아내의 결혼동기에 관한 연구」 『일어교육』 42, pp.241-258  
 설동훈·이혜경·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서울:여성가족부  
 소은덕(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지선·천혜정(2008) 「한국남성과 연애 결혼한 일본여성의 한국결혼생활적응의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13(2), pp.57-76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28(1), pp.73-106  
 정기선(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출신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20, pp.69-104  
 조현미(2009) 「일본인 국제결혼여성의 혼성적 정체성」 『일본어문학』45, pp.521-544  
 통계청(2010) 『2010년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홍순숙(2006) 「울산시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논문투고일	: 2011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1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1월	20일

20) 김석란(2007) 「재한일본인 아내의 결혼동기에 관한 연구」 『일어교육』42, pp.241-258

〈要旨〉

일본인 여성결혼 이민자의 생애사 연구

일본인 여성결혼 이민자는 결혼동기가 타 출신국가와 달리 동일교를 통한 결혼이 많으며, 경제적인 면에서 타 출신국이 개발도상국인데 반해 일본은 선진국이고, 또 한일 교류의 역사적 복잡성을 볼 때, 독립적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생애과정(이)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들의 성장과정, 결혼과정, 결혼생활 및 이주적응과정을 통해 이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생애 과정에서 나타나는 적응에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 여성결혼 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 자료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일본인 여성결혼 이민자의 거주실태를 알아보고 국제결혼 과정, 가족생활과 사회생활 적응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들의 적응과정의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생애사 분석을 통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국제결혼 과정에서 본인의 국제결혼 선택에 대한 의지가 높았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 만족에서 초기적응에서 남편의 적극적 도움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생활 적응에서 사회적지지 시스템의 의존도가 크다는 것이다. 넷째, 양국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한 혼란들이 예상되었으나 이들의 삶에서는 단편적 삶의 일부였다. 다섯째, 이들의 자녀양육의 문제, 맞벌이 부부로서의 문제 등은 한국 일반가정에서 결혼생활의 주요한 이슈와 동일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결혼 이주여성이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며 새로운 사람, 사회, 문화의 만남을 통해 자기를 확장하고 다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주체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었다.

A Study of Life History on Japanese immigrant wives in Korea

Korea has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Japanese immigrant wives' life history. Japanese immigrant wives are different from other immigrants of undeveloped or developing countries. Japan is economically a developed country and Japanese immigrant wives in Korea are producing through the c This study explores the Japanese immigrant wives' life history and the current issues and their efforts to adapt to Korean society.

I have collected and analyzed the life history of Japanese immigrant wives producing through the Unification Church's mass wedding and with the introduction of a friend. Analyzing the life histories is very meaningful way to reveal their experiences by women themselves. I have found the following facts. First, There is the individual decision to the international marriage despite of objections. Second, It is important to their initial adaptation that Korean husband's care and his family's affection. They should play crucial roles as assistants until immigrant women settle and adapt to Korean society. Third, Social support system hold a very important position in their decision making. Fourth, History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have had little impact on their life and existence. Finally, the issues of child-rearing and dual-income family is similar to that of Korean couples.